朝鮮日報
三十日夕刊四面
發行人 編輯人 林景來 印刷人 朴昌根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二 朝鮮日報社
電話本局三七三番

社說 滿洲國의將來

一

遠東의 앨칸인 滿洲問題는 지금 刻一刻으로 重大化하며 잇다 滿洲事變發生 以前에 오히려 世界의 痛이란 앨칸問題에 比한 滿洲問題가 昨年九月事變勃發로 因하야 一層重大한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事變發生以後 國聯과 日本과의 正面衝突이 몃번이나거듭되다가 畢竟 滿洲問題에 對한 具體的制斷을내리는 前提로 滿洲及本部中國을 調査키 爲한 調査團이 任命된 그들이 滿洲에 발길을 드려노키 前에 新事態인 滿洲國의 出現을 보게되고 爾來數個月동안 實地調査가 一段落을 告하야 最終的報告—調査團으로서의 最終的結論을 提出하랴하는 開際에 지난 六月拾九日附의 關稅再立 宣言及各海關에 對한 實力的接受가 斷行되야 바야흐로 世界의 注目이 滿洲에로 集中되야잇는 感이잇다 그러면 滿洲問題는 어떠케되는가 다시말하면 滿洲國의 將來는 어써되는가 이것이 吾人이 吟味코자하는 骨子다

二

滿洲問題가 世界問題로 轉化된 由來를 溯究하여보면 成豐間에 締結된 國境問題를 中心으로한 露淸璦琿條約이 滿洲가 國際舞臺에 登場한 序幕이엇다 그러고 拳匪(義和團)事件後 露淸北京條約 日淸戰役後 例의 三國干涉에 依한 遼東半島還附 露國의 旅大租借로 因한 日露戰爭의 爆發, 戰爭의 結果로 日本의 露國權利의 讓受等等 歷史的重大 事件外에도 鐵道問題를 中心으로한 日、英、露、米等各國의 暗鬪 角逐陰謀反目이 不斷히 演出되야왓다 이것은 滿洲問題가 世界問題로서의 重大性을 如實히 說明하는것이다

三

그런데 滿洲의投資關係에 表現된 勢力으로보면 滿洲에 投下된 全外資二十三億中 日本의 投資額이 十八億約 七〇%를 占領하고잇는것을 보아 滿洲와 日本의 關係가 얼마나 重大한것을 알수잇다 더구나 日本은 後進 資本主義國家로서 外國에 投資할餘裕가 그다지 綽綽치못한 實情인 外에 不得已한 國策上 施設及投資가 大部分을 占한것을 생각하면 滿洲에 對한 日本의 國家的 關心의 程度를 窺知하기 可能한것이다 그리고 滿洲를 生命線이라하야 死守코자하는 日本에게는 投資關係以外에 原料의 吸收地로서 鐵과 石炭의 供給地로서 加工品의 販賣市場으로서도 不可無할 寄生地帶가된다 그다음으로 重要한 利害關係를 가진것은 露國이니 中東鐵道를 中心으로한 北滿의 經濟的 施設及 極東의 政治的 經濟的 心臟 海蔘威와의 地理的 關係에서 重大한 關心을 가지지아니치 못하는것이다 그러고 米國가튼나라도 主觀的 關心만은 日露에 내리지 안는다 米國의所謂 三A政策의一인 亞細亞政策의 主眼點이 中國 더욱히滿洲에잇는것은 가리우지못할事實이다 究竟滿洲가國際政局의注視點이 된다는것은 日露의對立 日米關係의尖銳化를 意味함에 不過하다고 斷言하여도 決코無稽한말이아닐것이다

四

滿洲는 九月十八日事件의 勃發軍閥의 沒落으로因한 主觀的 條件의急激한 變革과 日本이積極的 進出과함께 國際的 關係의複雜化로因한 客觀的 情勢의切迫에依하야 不自然이엇든 自然이엇든 滿洲國을出現식히고야 말엇다 그리하야 國聯調査團의 來滿當時에 獨立國으로서의 存在를 保持하기에 苦心하엿고 承認論이 日本의 國內輿論이되야 잇슬뿐더러 海關接受가 事實上 成功으로된이째 東京側에서 調査團에게 提出하엿다는 滿洲問題 解決案——一、滿洲는中國의領인것 二、軍隊를廢하고 警察隊로治安을 維持할것 三、日本의特權益은承認할것과 調査團、張學良사이의 密約이라傳하는 共同 委員統治案等이 喧傳되지만 이것으로서곳 滿洲問題의運命 如何를論하는것은 早計도甚한 者이다 그러나日本의 承認이先行되야 國聯이나 東京政府의 策動을 未然에 防止할수가잇다면 滿洲國은日本의 勢力이 存續되는 限에는 그대로存立될것이다 滿洲國이完全한 統一的 中央集權 國家로滿洲의 治安을完全히 擔任하고 反쏘비에트戰線의 先鋒으로서의 任務를다하라면 아즉도 前途가遙遠한것이다 要컨대 滿洲國의將來는 主로日露勢力의 休戚 日米關係의 激化와함께 國家로서 成立된 存在價値를 發揮함에 不過할것인가한다

大連海關問題妥協案
名目으론民國管轄 實收入은滿洲國에
日本政府의居中調停運動
兩國政府受諾이疑問

【東京電】滿洲海關問題는滿洲、南京兩政府가 海關制度保全、外債擔保保障의二原則에基하야 實際的解決에到達되기를 容認하기에至하얏슴으로 日本政府의居中調停이奏功하야 近々圓滿解決을불希望이잇서서 日本政府當局도 愁眉를開하게되얏는데 日本政府의幹旋을라하는兩政府의妥協案은大體如左하다

一 海關制度保全의原則에基하야 滿洲國이 大連海關을接收 又는瓦房店 其他에滿洲國政府海關을設置함을 承認치안는다
一、南京政府는大連을除한 滿洲各海關에對한 滿洲國政府의實力支配의事實을認定하고 此等各海關稅收入은滿洲國政府에取得케할것을承認한다
一、大連海關의稅收入約一千三百萬海關兩은 外債擔保條章의 原則에基하야 南京政府에屬하고 南京政府는此稅收入으로서 滿洲海關의全收入에對한 外債擔保全額一千萬海關兩을支拂한다
一、大連海關收入으로부터 經費及外債擔保全額을 控除하고 剩餘三百萬海關兩을滿洲國에與할것
一、南京政府는 福本稅關長罷免을取消하고 日本人稅務員은 辭表를撤回하야 大連海關의現狀을回復할것

그리고 又妥協案에對하야는 英、佛、伊、等關係國도此를受諾하고 支持하는터임으로南京政府도 面目論을떠나서 承認하리라고期待되나 오즉滿洲國側이宣言을發한體面上 此를受諾하기에 難色이잇슬는지도몰으는바 日本政府로서는 妥協案을承認하도록 滿洲國에幹旋을거듭하리라고한다

滿洲國二次聲明全文

【新京電】滿洲國外交總長謝介石氏는 二十七日海關接收問題에 關하야 第二次宣言을 하엿다함은 旣報와如하거니와 그全文은如左하다

滿洲國은 建國과共히 그領域內에잇는 各海關을 接收하고 大連關에 就하야서도 적어도 그稅收는 滿洲國人民의 負擔임에 鑑하야 이것을 取得하는 權利가잇슴에 不拘하고 그獨立宣言及對外通牒의 趣旨를 尊重하야 中國海關制度의保全과 外債擔保部分의 負擔을 原則으로한 提議를하고 隱忍自重數個月 가진手段을다하야 中國政府의受諾을 慫慂促進하얏슴에 不拘하고 南京政府는 全滿海關收入의 大半을占한大連關의外 其他海關收入의三分一을要求하야 滿洲國으로부터 事實上海關收入의利益을奪하고 財政上基礎를薄弱케하고저하는 同時에右剩餘所得을治安을紊亂케하기爲하야 惡用하야 當國이最近에 드듸어大連에서의稅收의把握에 着手코저한것은 右와如한言語道斷의事態繼續을 防止하고 彼等으로하야금 我方當初의提議에應諾케하야 海關制度保全의目的을達코저함에不外하다 그런데彼等은事件以來 中國과滿洲國間에끼어서 困難한 地位에立한 中海關制度를 保全키爲하야 全力을 다한 福本稅關長을罷免하고 南京政府가 海關保全에 對하야 挑戰하는 暴戾를하얏다 南京政府는當然我方에 歸還할 稅收를取得코저하는 我方의努力으로써 海關制度의破壞라誣하고 南京政府는 一九二八年北伐當時마음대로「메ー스」를總稅務司에任命하야 北京政府의 正當任命한「에도와ー드」의 辭任을하게하야 海關制度의 統一을破壞하고 爾來完全히 總稅務司를비롯하야 外國人海關官吏를自由로頤使키에至하야 海關制度는崩壞를離免하리라는 觀測을가지기에至하얏다 그런데南京政府가當然我方에 歸屬할 稅收를取得코저하는 我方의努力으로써 海關制度의 破壞라하야 海關制度保全에 努力中이던 福本總稅務司를突然 罷免함과如함은 全然狂態라하겟다 依하야 不得已이에奧地各海關의 接收를斷行하는 同時에大連에서徵稅事務를開始하고 萬若이것이 不可能할時는 瓦房店에서我國에當然한 權利인 關稅徵收의權利를 行使하는 外에업고 右는全혀南京政府의實任인것을 聲明코저한다 今後我方의實際的 措置如何에不拘하고 外債擔保部分을 負擔할것과 外國海關에對하야가진 權益은 어듸까지든지 擁護할當初의方針에는 何等變更이업는것을 聲明한다

政治的解決期待
英佛等關係國도追從

【東京電】滿洲國政府의海關接收問題는 滿洲國이繼續하야 積極方針을取하는中임으로 滿洲와 中國關係가漸次複雜케되엇는데 日本政府는此間에在하야 目下兩政府間에 合理的妥協에關하야 極力으로 幹旋中이다 英佛等主要關係國도政治的解決 以外에는 打開의方途가업다는데傾하야 日本支持의態度를表하는中임으로 結局은非實際的 法律的論爭을止하고 實質的妥協策을 講究할것으로期待되나한다

延吉海關接收 圓滿裡에進行

【間島龍井電】延吉海關接收는從來關係上 武力解決以外[illegible]二十九日 滿洲國代表는 來間한延吉署偏處警備隊가 交涉한結果「알스」稅關長도時局의形便이如何히할수도업다하야 圓滿裡에接收員應諾하엿슴으로 二十九日午前十時半에먼저 滿洲國旗를 竿頭에 高히揭揚하고繼續하야 滿洲國의任命한官本氏와의사이에 實質的接收를 行하엿다 또琿春稅關도 平穩裡에接收될것으로뵈인다

大司稅關 假事務所開設
滿鐵建物借用

【大連電】滿洲國財政部는 大連滿鐵埠頭事務所 五階會議室을빌어서 二十九日부터 同所에 大連稅關徵收假事務所를開設하얏다

長期抗日斷行
◇中央紀念週에서 汪兆銘演說

(南京電) 日本의對滿行動에關하야 汪兆銘、羅文幹、宋子文等은 頻頻히滿洲를 目하야 日本의傀儡라고 高言하고 日本을陰謀者라고呼하는等、一國의責任者로서 不謹愼한暴言을公然發表聲明하야 世界視聽이滿洲에集中되고 日本도如斯한中國의 運動을重大視하고잇는이째 二十七日行政院長汪兆銘은 中央黨部의記念週에서 또中國一般民衆에게 奇怪한演說을하얏는데그演說은 絶對秘密로 外部發表를禁止하고잇는터이나 探聞한바에 依하면演說內容이如左하다한다

今般余가廬山、北平에赴하야 蔣介石及張學良과 抗日方針을協議하얏다、日本은滿洲에서 軍事的으로增兵하야愛國義勇軍을 壓倒코저할뿐아니라 財政的으로 滿洲國의 關稅自主、鄕政權自主及幣制改革의 黑幕이잇스며 또敎育에關하야서는 學校를封鎖하고宣傳을 만히하야人心을 欺瞞하고잇다 余는北平에赴하야 張學良에게 對하야 出兵을 促하야 滿洲의失地回收를促하얏더니 彼는 이에對하야 [illegible]同意를表하얏다 또熱河의湯玉麟은 日本人에게 許諾되어阿片의製造를盛行하고 人民의義勇軍加入을 禁止하는非國民的態度에出하고잇다 如斯한日本의行動은九個國條約及國際聯盟에서 認定된中國의 主權及領土를 破壞코저하는것이다 中國은此際이에對하야 長期抗日을斷行하고徹底的으로 滿洲問題를 解決할것이다(大每)

介石漢口着 討共司令部에

【漢口電】蔣介石은 廿八日午後三時軍艦永綏로來漢하야 滯在中은 艦上에서起居할것이요 또蔣은 夫人도同伴하얏다

【上海電】蔣介石은二十八日夫人과九江에서 漢口에向한바二十八日着 共軍討伐司令部에入할터이다

蔣作賓公使 七月四日赴任

【上海電】駐日公使蔣作賓氏는廿八日 上海出發의豫定이든바 一週間延期하야 七月四日出發赴任하기로되엇다

中露代表會見
民國의重要文書傳達로
露都外交團에서注目

(莫斯科電) 쏘베트政府外交人民委員會極東部長코즈미후스키氏는廿八日莫斯科駐在民國代表部에게 會見要求를 受한바右는 南京政府에서發送한極히 重要한外交文書를 傳達하기爲한 會見으로서莫斯科外交團의注目을끌고잇다

全體的縮少보다
單艦噸數縮少
米案에對한英國의對案

【倫敦電】「후ー버ー」軍縮案을 審議할英吉利閣議는 二十七日夜下院首相室에서열니엇는데「맥도날드」「씨버렌」「란시만」諸大臣은 아즉도 倫敦에잇슴으로 缺席하엿다 閣議는二時間에 亘하야 英國의態度를 愼重審議하엿는데 그結果「사이몬」外相은飛行機로二十八日「제네바」에「사미유엘」內相은汽車로「제네바」에 向하기로되얏다「사미유엘」氏는 賠償會議全權인바 軍縮會議가 再開된後에는 軍縮全權으로 活躍하리라고 보아氏의「제네바」行은 注目된다 閣議開會前에「사이몬」外相은 議會에서 「政府는目下「후ー버ー」案을 審議中이오 各自治領에 照會를發하얏다」는旨를聲明하얏는데各自治領에 照會한內容은 매우廣範圍의것으로 此에對하야 自治領이 異議를갓지아니하면 英國은 亞米利加案에對한 對案을 提出할것으로서 그骨子는 「후ー버ー」案으로서 會議에 刺激을 與한것을 歡迎하나 그러나 亞米利加案은 그대로는 受諾키 困難한 點이잇슴으로 海軍에對하야 總噸數縮少보다도 軍艦噸數를 縮少하는것이 可하다 하야 例하면 主力艦에 對하야는 三萬五千噸에서二萬噸으로 또備砲口徑도 此에應하야 縮少함은 亞米利加案의 主力艦의 艦型을 縮少치아니하고 그隻數를 減少케하랴하는것보다 實行할 可能性이 잇다고하는 것으로서 나시 潛水艦에 對하야는 依然全廢의 主張을가지고 萬若이것을 保有한다할지라도 亞米利加案의 最大單艦噸數 千二百噸보다 훨신적게할 것을 主張할것으로 解釋된다 陸軍에 對하야는 「탱크」全廢에는 反對할것이오 大型의것은 如何間 小型의것은 攻擊用武器로는 보기어렵다하는것이다

日本은一蹴
國防上不安痛感

【東京電】米大統領提案의 軍備三分一 減縮案에 對하야는 海軍省에서 研究한結果 如左한 態度로이것을 一蹴키로決하얏는데 近間此旨를 在「제네바」日本全權에게 訓令하리라한다

一般方針 米國은榮國際聯盟今日外지의努力을全然 無視한것으로이結果米國으로는軍備의增大建設을行하고 日英은反對로去益縮少破壞가 되어 國防의不安이 去益增大하는이다

專門事項 航空母艦은日本은 一隻을廢棄하고 米國은 建造中의 新銳艦을 保留하며 更히 一萬噸級一隻을 建造할수잇게되어 三吋巡洋艦은 米國十五萬噸日九萬噸으로는 日本은 古鷹級三隻의 廢棄로되며 其他日本은 千九百三十六年以降에四十三隻十七萬二千七百六十九噸의 廢棄로되고 昭和九年부터 十四年外지 建造가 全無하야 米國은主力艦五隻을 廢棄할뿐이오 日은國防의 安全絶望임으로 反對하는것이다

經濟改造、賠償均分
伊外相英佛에覺書提示

【로잔電】伊外相그랑디氏는英佛首相과別個로會見하고 伊政府의覺書를提示說明한바 右覺書는
一 通貨安定關稅障壁低下에依한 歐洲諸小國의財政經濟的改造
一 獨逸이 將來賠償金支拂할境遇支拂額은各國에平等으로 配分할
을骨子로한것이다

小國策動抑壓
報告前紛糾防止策

(제네바電) 西班牙代表「마다리아가」氏「체코스라박기아」代表「베네슈」氏及諸威代表等은三十日開催되는臨時總會에서 滿洲의 政治行政機構는何等憂慮할것이아니다 라는旨를 强調하야決議案을 提出코저企圖하나議長「이만스」氏는「리튼」卿以下調査委員의報告를接受하기外지는事態를紛糾케할과如한行動을 中止할方針下에 極力으로 小國側의策動을 抑壓코자努力하고잇고 二十八日도 前記三氏와會見하고 右決議案의提出을 中止하도록 說服中인데 二十九日의秘密十九個國委員會에서도 同問題를審議케될 것으로 리튼委員長報告는 十月前에到着되리라한다

八個小國 軍縮協議
米代表說明要求

(제네바電) 西班牙軍縮代表마다리아가氏를 리더로하는 八個國側은廿八日秘密히 마다리아가氏의 宿舍에會合하야 후버軍縮案에對하야 三時間이나協議한結果 大體로 此를承認한바 同案中의國內秩序維持를爲한 警察力에必要한軍隊라는것은 어느程度의兵力을意味하는가 又兵員中에는訓練을受한 豫備兵을 含하는與否에關하야 米代表 월손氏에게說明을 求하기로하얏다

注目되는 長官會議
中旬頃에開催

【東京電】政府는重大視되던 地方長官의 大移動이 政友會側의承服으로 圓滿解決되엇슴으로 七月中旬에地方長官 會議를召集하고 政府의施政方針을示하는同時에 特히農村窮乏의事情에關하야 各地方長官으로부터 個別的으로그實狀을聽取하야 이것을基礎로서關係五大臣이協議를行하고 最後對策을練케될터인데 首相으로서는 龔者六十二臨時議會에서 滿場一致可決된 時局匡救에關한決議의 趣旨即農、山、漁村과中小商工業의負債整理、農村과 一般失業者의救濟、米、生糸其他重要物產의統制 管理等에就하야 眞實히研究하는中이나 政府의運命을賭할 重大案件으로 萬一此等의對策이 失敗되면 時局은去益紛糾될 것으로 齋藤內閣의時局匡救 對策의 結果가 極히重視된다

南京에서密使特派
日本서는應酬안흘方針

【東京電】가장確實한곳으로부터 入電의依에하면 南京政府는 滿洲問題에關하야 日本과 直接交涉의端緖를 開할方針下에 來月初旬密使를 東京에 派遣키로決議하고 이미그 人選을終하얏다한다 右에對하야 當局에서도 滿洲國獨立 以前이면 勿論 直接交涉이必要하겟스나 이미獨立이 實現된 以上滿洲問題에 對하야中國과 直接交涉을 할理由와必要가 皆無하며 密使와 如한것과 會見하야 秘密히 交涉하는것가튼것은 斷無日本의 取할 態度가아니라하야 假令密使가 와도 會見等은絶對로 拒否할 模樣이라한다

道知事會議
─第一日─

七年度道知事會議는三十日午前八時半에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今井田政務總監 統裁下에 열리엇는데 松本京畿道知事를 筆頭로 十三道知事가 列席總督府側에서는 各局部課長은 勿論 府外에서 兒玉參謀長、今吉拓務省書記官、이參列開會劈頭에宇垣總督訓示에 今井田總監의 訓示가잇고 主管各局部長으로부터 指示가잇슨後 同日午後四時로 第一日의 幕은닷힛는데 今後의 順序와日程은 아래와갓다

七月一日은國際聯盟調査團의 來京으로休會하고 各道知事는京畿道管內烏山其他模範部落을 視察하게되엿슴으로 第二日은 三日午前九時에 열고知事의 意見陳述이잇고 午後七時에는 總督官邸에 招待宴이잇고 日曜日에 休會하고 第三日四日은 午前八時半에 再開諮問事項에 對한 答申第四日(五日)도 亦是 午前八時半에열고 協議打合이 잇슨後 閉會하기로 되엿다한다

穀檢國營
新標準決定

十月一日로부터 實施할穀物檢査國營에伴하는 新檢査標準(玄米)은大體 알레와가티 決定되얏다

(一)檢査等級의改廢 從來特等級은 此를廢止하고새로이 五等及을設置함 일新四等과 新五等의價差는大體三十錢가량으로할

(二)各檢査支所의新標準 米가알에와갓다

仁川支所 一等으로부터 三等外지는 現標準新四等은 ㉠의現四等新五等은 ㉢日의出(㉩無) 現四等

群山支所 一等으로부터 四等外지는 ㉦現標準과갓고 新五等은 ㉩現四等

木浦支所 一等으로부터 四等外지는 現標準新五等은 右四等으로부터三十錢低

釜山支所 一等으로부터 四等外지는 ㉧現標準新五等은 右四等으로부터三十錢低

鎭南浦 一等으로부터 三等外지는 ㉥龜之尾의現標準 新四等은 龜之尾現四等 新五等은㉢日出(㉩無)現四等

元山支所 一等으로부터 四等外지는 ㉢의現標準新五等은 現四等

農村救濟對策
‖五省會議

【東京電】農村救濟對策五省會議는二十八日午後三時開會하고 齋藤首相以下高橋、山本後藤、三土、中島의各相이出席하야高橋藏相、三土鐵相、後藤農相으로부터 救濟事業은各方面에撤底케하야有意義한事業을行할것 臨時議會提出救濟案은應急對策에限할것 等의意見이잇서서此際速히實行案을得키로하고 午後五時散會하얏다

辭令 (六月二十八日附)

任道警視(七等) (平北)道警部 森西竹次郎
補中江警察署長 (咸北)道警視 佐藤久吉
命平安北道在勤 (忠南)同 坂本官藏
命咸鏡道在勤 (中江署長)同 松岡修二
命忠淸南道在勤 總督府技師 菊地新吉
兼任道技師(七等) 命黃海道在勤
命平安南道兼勤 命平安北道兼勤 朝鮮道立醫學醫官 金子吉文
兼任道技師(六等) 命江原道在勤
兼任京城帝國大學助敎授五等 命醫學部勤務 同 稻田宣男
依願免本官 (平北)道警視 伊藤容憲

如意棒

▲滿洲國의 外交次長 大橋氏는 姓대로 가르의 日本人인데 가르되▲大連海關接收를 日本이 妨害한다며 瓦房店을 死守 萬一 瓦房店稅關設置外지 日本이不法으로阻止한다면▲그것은 新國家의 稅徵收權을 否認하는 矛盾行動이라고▲抗議다운 警告다 攻擊다운强硬態度로 日本은 純粹外國然視하고 뎀비는 妙味百有一퍼센트▲大橋氏其名이 忠一이라 隨其名하야 엇지滿洲와 日本에同時的 盡忠할소냐▲이 點伯夷叔齊에 갓갑거니와 ▲이제그가日本官吏된다면 元來 忠一이라 그때는 伊尹化할 셈인가。

商況 (三十日)

朝取株式 前場다시昂騰

前場은▲東新이百四十二圓七十錢에二十錢高寄後漸次步調를 取하다가 煎物과新規買外지나와 四圓五十錢에外지올는고 大引은 四圓四十錢이엇스며 ▲大新六十一圓八十錢에 一圓十錢高寄後二圓五十錢에 積機大引▲朝新十九圓六十錢에 十錢低寄後同價가 잇고 ▲拓新七圓五十錢에 三十錢高寄一本▲殖銀新二十四圓丁寄一本이잇섯다

得場多少軟弱

後場은 ▲東新이 百四十三圓四十錢에 一圓低寄後四十錢六十錢으로 四圓八十錢에 底强大引▲大新六十二圓四十錢에 十錢低寄後十錢으로 三十錢大引 ▲朝取四十九圓五十錢寄後同價一本이잇고 ▲朝新十九圓六錢에 同價寄後五十錢으로 六十錢大引 ▲安取六圓五十錢大引▲拓新七圓三十錢에 二十錢低로始하야 三十錢으로大引이엇다

朝取期米 前場反高納會

昨後場阪地 二十四圓十三錢止와 共히 二十一圓十四錢에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四圓十六錢인 三丁高를 報하고 二十一圓(一)六錢인 反히 八丁低로 場을始하야後 阪地 二十一圓十九으로反騰하얏음不拘하고 十錢의 四番同事인 殆히頭盛形勢를支續하엿스나 阪地의 漸次高潮로 四十九錢에 納合한을딸아 二十五錢의 最高로納會되엿다。

取組上短下長

昨後場外지의 俵合에 依하면 當地先限의 取組는六對二의 上短下長으로 一萬二千七百石의 表現數字를 示하는바 賣方은 丸ウ의 四千七百石과 金太의 五千八百石 其他四店으로 賣方은 金×의 一萬一千五百石의 大賣物로 取組의 大部分을 占하엿스며 쌀아서商狀은 烏合의 群衆의 買物이 蝟集한만치 그勢力이 微弱하야 容易히 高價를 不許하는 光景이다 大體本年米는 農民의手中을떠나서 商人에게 占有한바되어 日本의 買注文이 不振함과 共히 그思惑方針을 轉換하야 期米에 賣繫하는만치 金×의 賣物도 奧田精米側을 비롯하야 共他正米가 大槪同店을 本營으로하고 賣繫한모양이다 果然今後正米側의 態度가 何如할지는 疑問이나 頭上의天候와 모든環境의 情勢가當分低落을 不許할것을 생각지안흘수 업다고 云云

逆日步下鞘

昨日에 東新이 百四十一圓臺에外지反落不勢이엇스나 價買物로 續落되지안코 後場에 頑强인뒤를이어 今前場은 또百四十四圓臺로 昂騰되어 商勢가 峙코歎派의期하는바와가티 弱것이아님을 알것하얏다 그러나 當地人氣는弱하야 逆日步에도 不拘하고下鞘로 大引되엇는데 이는屢次東新이 百四十五圓外지 가고는 또反落한經驗에 依하야 戾賣物에 나온때문인데 如斯한 場面은 一張一弛가繼續될뿐이엇다

株ー界ー六感

强弱의見解에 極端의差가잇서 서로對峙하고잇는데언케眞正한分此가잇슬는지?
◇
不景氣가深刻하야 政府의不況對策諸救濟策이 熱心히講究되는터임으로結局인플레이순은必至의勢이오 從하야中間景氣가잇슬것도갓다
◇
그러나大局的으로 본다면亦是不良한것이잇서 安心買를躊躇케함이不無
◇
또一方으로는悲觀만하야積極的으로賣進키도 조심되는外닭에賣亦難
◇
그리하야市勢는 갈팡질팡할뿐

米ー豆ー餘話

當地의 頭重不伸은 正米師가 賣叩한外닭이라고 그러치만 正米師라고 반드시勝利하는것은아니것다。
◇
雨不足으로 植付도 完了되지못하엿고 또旣히 植付한것은植死하는 狀態라나 旱天을 繼續한다면 人爲的으로는 無可奈何。
◇
農家에서 出盡한米가 商人의手中에 積滯하엿스니 農民의食糧問題를 提出하게 된다면 큰强材인걸
◇
政府는 農村救濟의 一策으로各種預金部 低利資金 모라토리움案을 實施하기로 決議될모양이라나 于先 應急策은 될것다
◇
日銀은 爲替動搖의 激甚으로 金의 買入價格發表를中止한다나 產金業者로서는 啞然이로군

當分靜觀得策

賣하자니 爲替低라는 材料가잇서 安心할수업고 買하자니 根底가不良하야 큰値動이 업고 同一圈內徊徊인데 이런때는 섯불니 腰入하야積極行動을 取할수업다 그러타고 目前的으로 小掬主義로 나가자하면 이것이 上下間分岐된때 意外의 損을보기쉬우니 그것도 조심할 일로當分靜觀할이得策일 것가트며 輕擧를避함이可할듯하다

新甫發會預想
二十丁上鞘?

昨一日에 發會될 新甫九月限은 昨年例에 依하야 十餘丁乃至二十丁假量의 上鞘說이 多하다。

仁川正米市勢

㊂三等	一石	二〇、二〇
四等	一石	二〇、〇〇
同 無檢査地方米	一石	一八、〇〇
一等精白米	六十瓩	八、六〇
在來正祖	一斤	五七
改良正祖	一斤	五九

仁川大豆市勢

龍山大豆	一石	一一、一五
長湍大豆	一石	一〇、六〇
金浦大豆	一石	一〇、三〇
海州大豆	一石	九、八〇
天安大豆	一石	九、六〇

萬目注視中의

國際聯盟調査團 今朝京城에到着

이십여대의자동차를난우어타고 총독부기타시내요소를구경할터

平和의使리튼鄕一行

만주와 상해사건을조사하기위하야동화아회의 사명을띄고 동맹에지고금번봄에 일본을잘시거처어 중국상해로부터 남북만주를 고루고루순회하면서 환환의세례를바든남어지를조사하고 고유균(顧維鈞)문제로인하야 해로로일본을가는니 륙로로가는니문제의문제를거듭하든 국제련맹단의「리튼」경일행은 고유균 울케하고 륙로의코쓰를밟바서삼십일 오후에조선의 국경인신의주를 경유하야떡의의 조선동포는모심으기에 분주한평원광야를 내려다보며 이십여대의일이동만 런결한특별렬차로조선을통과하게되얏다 그래서그들의일행은 금칠월일일오전에조선의 수도인 경성역에하차하야 즉시조선호텔에서 피로한행장을쉬르고 아츰을치른후에 다시 이십대의자동차로 총독부을시작하야 시내의요소를시찰할예정이라한다

京義線沿路는 宛然鐵瓮城

전긔한바와가티국제련맹조사단의「리튼」경일행을 태운임시렬차가압록강철교를 거처어신의주에 도착하자정거장에는 평북도지사신의주 부윤기타관계의 출영이잇섯고 경의선연로천여리에는 시기가시기만치 만일을염려하야 소관각경찰의총동원으로 정사복경관의 경비는물샐틈업시 검검속에천선제와가티 숨어잇서무심한촌사람으로하야 무슨중대사건이나 돌발한듯이 어안이벙벙하게되얏스며 적(積)외사과장을 시작하야 총독부출영자와 기타각신문사 특파원으로담소가 허락하며 리튼경일행이십여명은각기침실에누어서무엇을하는지 고요할뿐인데 오즉 레루를 시처가는박휘소리만이어둠의 적막을깨트릴뿐이엇다

萬寶山事件의 正式會見

우원총독을방문후

평화의사를맛는 이날의 조선호텔에는 일본국기와 참가한각국의국기로 식당의량편을장식하엿는바 조반을마친 그들은「리튼」경을 시작하야 대표자몃사람과 비서역 수명을대동하고 조선총독부로 우원(宇垣)총독을 정식으로 회견한후에 작년팔월에 만주사건이발생된 최근의 원인이라고하는 만보산(萬寶山)건사을시작하야평양(平壤)으로부터 전선에서 이러난 중국인배척운동과 현재 남북만주에잇는 조선동포의취체와 기타입적(入籍)문제에대한 정식 질문과 답변이잇슨후에 다시호텔로도라가서 자동차로 창덕궁(昌德宮)과조선 신궁을 배방하고 남산에서 경성시중을 내려다본후에 다시도라와서 자유스러운 하루동안을 보내리라한다

隨員과 全權氏名

아래에 일행의씨명을 소개하건대 일본측은 길전권대사(吉田全權大使)외에열일곱명이라한다

·릿튼(英)알또반데(伊)클로델(佛)매코이(米)同夫人 쉬네(獨)허-ㄴ쓰(佛)同夫人 영

朝鮮問題에는 「영크」氏가專門

리왕직에서는다파향응

국제련맹조사단일행삼십오명(외국인십팔명、일본인측십칠명)은오늘아츰일곱시오십분에 경성역에도착하는데 이일행가운데는「릿튼」경위원장외에 특히조선사람문제 전속담임인 미국법률고문관「영크」씨부부도온다한다

조사단일행은 경성역에서 발오「조선호텔」에들넛다가오전중은총독부에들너 우원(宇垣)총독을맛나고 점심은「호텔」에도라와지난뒤에 오후에는각긔자유행동을취하는중 「콜푸」「정구」(庭球)도하고 박물관과비원(秘苑)을구경하고 리왕직(李王職)의다과회(茶菓會)에 참석하고 중추합누(宙合樓)에서 경성대학(大學)남산공원(南山公園)등지를구경하고「호텔」에도라왓다가밤에는 룡산총독관저(龍山總督官邸)에우원총독(宇垣總督)의초대에 응하고 명일 아츰여의 오후열시삼십분남행발열차로동경으로향하리라한다

紅中俱樂部 自發的閉業

도박발견으로

지난이십칠일밤열한시경에 종로경찰서원이 종로이정목 일대를 순찰하든중 동이정목 사십사번지 홍중(紅中)마작구락부에서 익선동(益善洞)백사십칠번지박태한(朴泰漢)외세명이 마작도박을 하고잇슴을발견하고 그곳을습격하야 그들을 체포하는동시에 현장에잇는돈사원까지 압수하야 종로서로인치하여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전긔와 가튼사건이발생한것으로말미암아 그마작구락부주인은 자발적으로 폐업을하얏다고한다

全尙根 五年言渡

검사구형대로

(간도) 회요파공산당원권상근(全尙根)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사건은 삼십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재판장으로부터검사의 구형과갓치징역오년의언도를 하얏는데이에 역시공소권을 포기하고복역하기로결정하얏다한다

金燦은十年言渡

공소포기하고복역결정

조선공산당거두김찬(金燦)에 대한치안유지법위반 사건은 삼십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 재판장으로부터 검사의 구형과가티 징역십년(未決通算二百五十日)의판결언도를 하얏는데 피고는복역하기로하고공소권(控訴權)을포기하얏다한다

千餘匪賊이 林城占領

모처착전에의하면이십칠일 오후에약천여명의비적은림전현성(林甸縣城)을습격하야이를점령하엿다한다

質問、叫彈、注意로 府首腦級도唐慌

부정사건의내용을발표하라고 의원들은질문전으로종시일관

去益醜惡한府廳內幕

경성부회(府會)의제삼일속회는 이십구일 오후두시부터 의원사십이명이 출석(결석증아(曾我)의원) 으로 개회되엿는데 방청석은 이날도역시 만원이엇다 여러의원으로부터「뻐스」문제 수도(水道)문제 공동묘지(共同墓地)문제 순회진료(巡廻診療)문제 기타 부청직원사무불통일문제에 관하야 맹렬한질문 규탄、주의、희망、들이잇섯는데 무엇보다「뻐스」부정사건과 토목담합(土木談合)문제에대하야 가장맹렬히 부당국자들의 가슴을찔으는듯하는 규탄적질문이 만힛고 개중에는 그부정사건의내용을 공개하라고 재촉까지한이도잇섯는데 당국자는 이뒤부터는 천만번주의하겟다 하고 사건이사법관의 손에걸녀 조사중에 잇슴으로 그내용을 도저히 공개할수업다 하얏다 증아(曾我)의원이 토목담합사건에대하야「부당국자가토목업자와 담합하는방법은 입찰(入札)을 시킬때에부당국자가 변소에가서 략호(略號)를 조회조각에써가지고 써려트리는 것인데가령 사만오천삼백원이란것을 알녀주고 커할때에는「쪽지」이라는 수작를 써가지고변소에 써러트리면 토목업자는 그것을주어보고서입찰을하게되는 것이라고하고 당국자와 토목업자사이에어떠한 비밀적담합을 하고잇는것이라고 규탄한때에 하야 문협(門脇)내무과장은 극히흥분한 태도로써 자긔는 단연히 그러한의심 바들일은 조곰도업다 고변명 한것으로 말미암아 의장(議場)의 공긔는 갑작히 떠긴장한빗을띄는동시에 김사연(金思演)중촌(中村)씨등기타 이삼의원오로부터 신문지에 발표된배 무파장의 당화를 지적하야한다 참동안 공격적질문이 잇서서 부당국자는 창황망조한 상태에이르기까지 하얏다 그밧게 부행정(行政)의 불철저부주의동에 대한만흔질문과 답변이잇고서마즈막으로 비호(肥塚)씨의 부당국에대한정중한 주의와 희망이잇슨뒤 말성만가잇고 또한 그취급에잇서서 흔부회는 막을다첫는데 때는 여섯시오분이엇다

亂麻의內幕 事實이證明

뒤죽박죽이된부의행정 감독자는무엇을하는고

常任委員의報告

경성부의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에서 경성부의출납(出納)의결의집행(議決執行)과 사무의관리(事務管理)를 검사하고 사무에 관한서류와 계산서(計算書)의 검열을 하야 그런말을 부회에보고한바를보면 다음과가튼 여러가지 부정(府政)의 불철저와 실태가 지적되어잇다

◇水道에關한事項＝케일회(一回)는 검사때에는 수질(水質)이자못 우려할만한 상항에잇서서 그설게시행(設計施行)에 다대한결함이 잇지안는가 하는 의혹이 농후하얏다。

◇順化院＝조제소(調劑所)취사장(炊事場)등이 불결하기 말할수업서서 아주비위생적이엇다。

◇社稷公園＝공원으로서의 설비가 전혀 불비하야 빈터와갓고 공원의풍취(風趣)가 결핍하다。

◇東大門柴炭市場＝영세를 일년에 오백십삼원 륙십전이나 지불함에 도불구하고 그소관은 짓밟버부숴여서 헛간에 던두엇고 빈땅은 작년십일월부터개인의 토관제조장(土管製造場)으로 리용되어잇는때 시장의존재는 유명무실하

◇職業紹介所＝그위처가부적당하고 설비도 개혁할점이 만다

◇오쎄스에關한事項＝조차(換車)가아직충분치안코 그부분품의 성능(性能)에 대하야 일층연구하야 사도될필요가잇고 또한 그취급에잇서서 관찰하게되는수가 흔히잇다

◇圖書授產場＝당업의상황으로는 존재의 의의(意義)가 박약하다 적당한 당무자(當務者)를 어며 적극적으로 개혁하지안흘것가트면 차라리 폐지할만 갓지못하다

◇內務事務＝속긔록(速記錄)의 원본(原本)은 부에보관하는것이 문서보관의 책임상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원본이속긔자에게 잇슴은 부당하다

◇會計事務＝장부긔재식에 불비한점이잇다。

◇昭和六年度施行建築諸工事＝뚝섬수원지 펌푸실 부속물실(附屬物室)은 준공한뒤곳곳비가새고 서부질옥(西部質屋)은 벽긔가벗겨지고 혹은 창문이 비뜨러저서 꼭맛게다처지지안는데 이것은 공사감독과준공검사(竣工檢査)의불충분한것으로 인증할바이다

◇歲出＝일부회계(一部會計)에서 지출할것을 부비(府費)로 지출하는것과가튼 틀린경리(經理)를 하고잇고 사회개량비(社會改良費)는사회개량을 목적하는데만 쓰지안코 엉 토당토안는 곳에지출하는일이잇다

第一次送局한 駒田等起訴

十七名全部를起所 即時豫審廻附

토목담합사건으로제일차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넘긴구전(駒田)등십칠명은 삼십일에 검사의취조가 끗나는 시에 전부긔소(起訴)되어동법원예심(豫審)으로 회부하얏다

土木業者送局後 現職官吏에着手?

飛島組幹部引致코調査 中村署長과檢事密議

시내본정경찰서(本町署)에서 계속적으로 검거중에잇는 토목청부업자 담합사건은 작이십구일에도 동서목내(木內)형사가오토바이로 출동하야 시내 고시정(古市町)십사번지비도조(飛島組)총본공사(塚本泰士)와 고지안일(高知安一)등삼명을 인치함과 동시에가택을 수색하야 다수한증거서류를압수하얏다한다

그런데 압호로는 토목청부업자의검거는 일단중지할 모양갓치뵈히나 금일부터는 현직관리들의 부정사실을 적발하야 적극적으로 검거를개시할것갓다 그리하야 중촌(中村)서장은 검사국을 방문하야 장시간의 밀의를거듭하는등 동서의공긔는 극도로 긴장되야잇다

第四次送局 七名收監

네번에오십이명수용

記者一名恐喝罪

전긔한토목청부업자담합사건으로 본정서에 검거된총수는 칠십여명에달하는중 금삼십일청오에는 제사차로 △平壤土木請負業者水谷岩松△楠組河村重行△鹿島組京支主任海野要雄△京城土木合資會社代表坂井淸治△山崎組代表山崎勝三郎△鹿島組小川或一△多賀保 등의칠명일건서류와함께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 그리하야 금일까지 검사국으로송치한인수는 사회에오십이인에달하며아즉취조를맛치지못한자가십오명에달한다 금회토목청부업자담합사건의유일한부산물로본정서에서취조를당하든경성신문(京城新聞)긔자화전저삼랑(和田猪三郎)도금삼십일에 공갈죄로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송치되얏다한다

女子寄宿舍만 侵入한窃盜逮捕

열네곳에서귀금속절취 배화학교에서필경체포

이십구일오전열시경에부내필운동(弼雲洞)배화녀학교(培花女學校)긔숙사에 수상한조선청년 한명이 침입한것을 소사리중근(李重根)리현순(李賢順)량명이 발견하고 붓잡으려한즉 그는담을뛰여넘어서 도주하는것을 추격하야 체부동(體府洞)로상에서 붓잡아 소관금교(禁橋)파출소에 넘겨종로경찰서로 인치하여다가 령목(鈴木)형사의 담임으로 취조한결과 그는평양(平壤)출생으로쇼부정한 김봉순(金奉順)으로작년십이월에 김천(金泉)소년형무소를 출옥한이후로 경성부내각녀학교의긔숙사와병원간호부긔숙사만 침입하야 귀금속(貴金屬)현금(現金)의복등 수천원어치를 훔쳐내어가지고 신분에적당치 안흔 호사를하고 화류계(花柳界)로 출입하고 돌아다닌것이 판명되엇다한다 그가 범행한곳은 의전병원(醫專病院)간호부긔숙사와 대학병원 간호부긔숙사를 비롯하야 경성녀자사범학교 긔숙사 숙명녀학교 긔숙사 진명녀학교 긔숙사 리화녀학교 긔숙사 제이고등녀학교 긔숙사 룡곡녀학교긔숙사 경성사범학교 긔숙사 등각녀학교 긔숙사에 전후십사회나 침입하야 다수의귀금속금품등을 변것인데 그는이몸시어염분미남자이라한다

漢江에女兒屍

범인수사중

이십팔일오전오시경에부외 ……견하고 그것을 풀어본즉뜻밧게그속에는 딸면으로 지은흰동복조고리로 싸흔난지 팔개월가량된 계집아해시체가 들어잇슴으로 깜작놀내여 즉시 이사실을 경찰에 계출하얏슴으로 경찰에서는 그범인수사에로력중이라하며 시체는 버린지일주일이 지난듯 하다한다

三百의屍體遺棄 陽東方面의激戰

비적은목하도주에분주

모처착전에의하면 선(潘海沿線)부근에잇든만주국우지우(于知宇)군은 최근의 일본의유력한관동군(關東軍)의원조를바뎌동변도(東邊道)서북지경으로부터비적당취오(唐聚五)의부대를공격하야 통화 반해면(通化)방면으로축출을식히고 잇든중지난이십칠일아츰에양동(陽東)남쪽에서비적약칠백명과교전하야 대격전을 일운 끗해적은 시체약삼백을 버리고 사방으로 흐터저버리엿다

談合事件으로 特別豫審을設置

담임판사를물색하는중

본정서에서는 크나큰것심밋혀검거의손을 내여미른토목담합사건은 긔보한바와가려전후삼회의 송국을하야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는 관계자가사십여명에 달하엿다이들의범죄내용은 다액의금전관계일뿐아니라 관계자가운데에는 토목사업계에유력한인사들이만하 강력도사건모양으로 간단히 긔소결정을할수업서 반다시예심을거처야할형세이다 경성지방법원에는사계의 예심이잇서셔예심은사상사건을 취급하고한예심만히일반사건을 취급하느매모다사건이산적하야 당할사건을심리할수업는 형편인다그리하야 이동(伊東)원장은림시로 특별예심을맨드러가지고 이사건을 전문으로취급케하려고 계획을세웟다 이십팔일에는 물색하기위하야경성복심법원 가등(加藤)형사부부장과 협의한바가잇섯다이특별예심에 뎐거될판사는복심법원에서 선정될모양인데 삼일내로결정을보리라고한다

全州談合事件 最高公判開廷

토목계에선극히주의 새벽부터방청석만원

무전순일(武田純一)이단민일랑(伊丹民一郞)부전리칠(富田理七)전중미삼랑(田中米三郞)산성경일랑(山城慶一郞)안달보부(安達保夫)촌상가륙(村上嘉六)등칠명에대한 소위전주(全州)토목담합사건의 상고공판은 삼십일오전열시십분에 경성 고등법원법정에서 증영(增永)재판장 주심 하촌(河村) 검사립회하야 목야량삼(牧野良三)변호사등 렬석으로 개정되엿는데 째마츰 본정경찰서에서 검거취조하고잇는 경성 토목담합사건이 세상의 주목을 쓰을고잇는터임으로 이날의 공판도 자못흥미를 쇠을게하여 방청석에는바늘한개 드러노을틈도업슬만큼 대만원을 이루엇고 법정밧개까지 방청객이 들로서충만하얏다 목야 변호사로부터 약두시간동안이나 총론(總論)각론(各論)으로분류하야 장황한 변론이잇고 열한시오십오분에 삼십분간 휴정하얏는데 목야변호사의변론이잇섯다

檢事는 棄却要求

오후령시사십분에계속개정하야 적미동의 변호사변론이 그치자 하촌검사로부터 이사건은 복심법원의판결이 정당함으로 상고할필요가 업스니 기각할것이라고주장하고 언도는 후일에결정하기로 하얏다

게집 차저주

【원산】부내영정(府內榮町)백오십번지고모(高某)의처리씨(李氏)(三二)는지난이십륙일 오후오시경현금십원을가지고 물건사러간다고집을나가도라 오지안음으로그의남편은원산경찰서에수사원을계출하엿다

휘파람

▲륙로로가느니 해로로가느니하고갈팡질팡하든국제련맹조사단일행은금일아츰에 경성에온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듯고 갈려노 ▲방갓쓰고 담배째물고 단일친구는업것지 ▲그러나 우리에게야 무삼관계잇스랴 ▲얼는 비나 축축하게와서 농촌이나풍족하얏스면 회파람군도 엇개가 웃숙하야먹장가라부은듯한 논두덕으로도라단이며 회파람장단이나 마처불가한다

朝鮮總督府及滿洲 巡査募集
受驗講義錄發行 기다리시든講義錄지금出來
前途有爲의靑年은奮然히오라 行政整理에依하야淘汰된後는素質이優良한新志望者의諸君을歡迎하고잇다 斯界의權威를中心으로組織된無二의本會에入하라(希望者는郵券二錢封入申込規則을直送함) 官界의登龍門은諸君의앞을待함 現今內鮮及滿洲에大增員計劃中本會를利用함은지금이好機 理想的의通信教授 今回의外務省巡査試驗中會員大部分合格
京城府永樂町二丁目ノ二番地 朝鮮警務學會

京城金弘瑨內科醫院
內科チストマ(肝臟)十二指腸虫(寄生)科專門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番

印材 印章印材
中島印材店
京城府黃金町三丁目八 電話本局三四四三番 振替京城一五二〇五番

恩給
極底利立替年額及年齡通知事 京城笠井町 一〇五朴商會

生
活簡便食費節約諸病根癒新生食法說明書送呈要貳錢切手參枚 京城府外新設里 朝鮮保康會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京城黃金町入口日本生命樓 診察 十二時半마지及夕刻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旧龍山)元町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京城鍾路(旧裁判所前) 總販賣部
京城府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總販賣部支店

귀부인화장에변치안는
박가분
京城蓮池洞二九○ 朴家粉製造本舖
新案特許 到處著名電氣商會雜貨店에販賣

電氣
다리미
一式付特價一、八○
堅固耐久、優美安全
朝鮮服、洋服兼用
其他一切電氣器具、材料特價大提供!
京城鍾路三丁目六五(振替京城一一三○八番)
型錄進呈 特約歡迎 製造元 東亞電氣工業所

治痲球
男女痲疾의靈藥
定價 五十粒入一圓 百粒入一圓八十錢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製造元 救世藥舘
電話本局二九六九 振替京城一二六九

保險金六千圓이탐나 姙娠中의愛妻毒殺

兇惡無慈悲한男便은 畢竟逮捕되여公判에

△檢事死刑을求刑

【함흥】 작년십월경에함주군동천면동양리륙십번지(咸州郡東川面東陽里六十番地) 김병조(金秉祚)라는자는자긔의처임순녀(任順女) 임신(姙娠)오개월이된녀자를 부사생명보험회사(富士生命保險會社)에륙천원생명보험(六千圓生命保險)에가입식히고보험금(保險金)을탐내여비상을보약이라고 속여먹이고 죽게식힌사실이발각되여당지소관경찰서에 검거되여엄중한취조를 바든후검사국에넘기여 이래오륙개월동안함흥검사국(咸興檢事局)의엄중한신문을 바더오다가지난이십구일오전구시경에함흥지방법원제일호법정(咸興地方法院第一號法廷)에서좌등판사(佐藤判事)와제강검사(諸岡檢事)립회하에 제일회공판(第一回公判)이열니자근면에드문악착한 범행의소식을들은남녀들은 그결과를주목하여오다가 금일을당하야 쉬는재판소(裁判所) 문전에는입추할곳이업시 방청자가운집하야 공판정(公判廷)에는벌서만원을 일웟엇고공판정(公判廷)에들어못간수천대중들은범인이라도 구경하기위하야공판이맛치날때까지 밧게서기달렷스며 순서를딸아피고(被告)의신문(訊問)과증인신문(證人訊問)이끗나자제강검사(諸岡檢事)의론고(論告)에의하면 피고는경찰의취조에도 독살하엿다는것을자백하엿슬뿐만 아니라 검사신문에도 사실을고백하엿고당시김명학박사(金明學博士)의시체해부와저반증인의신문에의하야 독살이사실이라하야사형(死刑)을구형하엿는데다음에 한세복(韓世復)정상(井上)량변호사의열변이잇슨후 동세시경에폐정되엿는데 일반은오는칠월륙일의판결언도를 크게주목하고잇다한다

平北의乞人 千百名

금년의조사

【신의주】 평북도내의걸인총수는 금년사월이후의 조사에의하면 일천일백삼십사명으로전년보다 일백륙십칠명의 감소라한다 그러나 이조사는 확실한조사는 못된다고 하는바군별로나누면 대개다음과 갓다한다

▲新義州二七▲義州郡九 ▲龜城郡二〇▲泰川郡二六 ▲定州郡三九▲熙川郡六五 ▲寧邊郡一八八▲博川郡五九 ▲定州郡五二▲宣川郡六三 ▲鐵山郡四四▲龍川郡一六 ▲朔州郡二一八▲昌城郡四三 ▲楚山郡五▲渭原郡一三 ▲碧山郡一九▲江界郡九〇 ▲慈城郡六二▲厚昌郡七 計一一六四

郡別 영변군에 만흠은작년내의농촌 불황까닭이며최고위인삭주군은 작년의 삼백칠십일명에 비하야는대 격감이라고한다。

吉林서온避難同胞 平壤署에保護哀乞

馬匪賊의横行으로 살수업서도라왓서

【평양】 지난이십팔일경에 만주길림(滿洲吉林)으로부터서 가족십오명의피난동포(避難同胞)가평양까지 천신만고를겪그며드러와서 평양경찰서(平壤警察署)에보호를애걸하얏는데 그들의지난바눈물겨운애화를듯건대아래와갓다 길림일대(吉林一帶)에는 마비적(馬匪賊)이횡행하야 각처의조선동포는 도저히살수가업서 간신히몸을빠저평양까지왓다 고한다

그들은 충남사천군(泗川郡)의출생으로금으로부터 십수년전에 중국길림에십여가족 이이주하야 우量黃농업을 경영하야피와땀으로모은다 소의저금도잇섯든 바금월초생에뜻하지 아니한수천명의 비적(匪賊)이습격 하야이번에 몸을빠진 십가족이외는 데게〇〇되엿슬것 이라고하면서눈물이 비오듯흘너내렷다 그리고그들은 은암흑한 방중에 긔묘하게몸을빠져 봉천으로도망 하야왓다 고하며그들은 평양불교공제회(平壤佛敎共濟會)에서 하로의피곤한몸을쉬게한후 경성까지 에갈려비 를주어 이십구일 평양을출발하얏다

◇……바위에부대치는동해의자즌물결……◇

奇特한面長

誠米貯金으로 窮民을救濟

【갑산】 함남갑산군산남면(甲山郡山南面)김면장은각리구장과협력하야궁민을구제코저매년十五년도부터실시한고미저금을차저서 면이십사개리중특계리극빈민에게는아주 …고그밧동리에서는 각리유력자가무리자로 식량을 대기로결정하고 방금구제중 이라는데 구제된동리와구제액은 다음과갓다한다

會寧里 丹陽里 國樂里 時化里 革坪里 石幕里 全人口 一千二百名 救濟總額壹百六十餘圓

安州海岸에 漂着한怪死體

얼굴의가죽은박탈되고 량수와목은절단되엿서

◇安州署에서犯人嚴探

【안주】 지난달이십삼일경 안주군로구진파출소(安州郡老口鎭派出所) 관내청천강하류(淸川江下流) 입석면해안(立石面海岸)에 사체가표착하얏다는 계출이잇서 동파출소에서 즉시현장에 달려가 취조한바 사체는두손목이 끈어저잇고 또얼굴(顔面)은 전부섭질을 베겨저잇스며 두부(頭部)는 두개골(頭蓋骨)이 外로출하야 잇는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괴괴(怪奇)한사체가잇섯다 이괴괴시체는 물론타살의 혐의가 잇슴으로 안주경찰서(安州警察署)에 급보한바 동서앵 사법주임(櫻井司法主任)과 안주검사국의 정원검사(井原檢事)가 안주탄광(安州炭鑛)의 대내의사(大內醫師)를 대동한후현장에출장하야 사체를 해부(解剖)에 부쳐검시의결과사후 오일간을 경과하얏스며 추정년령은 삼십가량인데 중국인용내의를입엇고각반과지가다비를 신은것을 미루어보아 중국인로동자(中國人勞働者)인것이틀림업고 사체는참살한후바다에던진것갓다 동서에서는 즉시 관내일대(管內一帶)에 조사를엄중히하는중인데아마정주방면의토공(土工)에 종사하든인부로인가하야 목하 정주방면에 수배하야엄탐중이라한다

山野五十町步를 火田民에게開放

咸北富豪李永彩氏의美擧

【라남】 북선개척(北鮮開拓)으로인연하야 총독부와 도당국에서가 장뇌를썩혀 는바 화전민(火田民)의정리 인데이 문제로인하야 관계당국은 만흔고려를 거듭하는중 경성군오촌면오상동(鏡城郡梧村面梧上洞)에 서거주하는 부호리영채(李永彩)씨는사선에서방황하는 화전민을 위함과 동시에 또는북선개척(北鮮開拓)을목적하야 무산군 연사면 광양동(茂山郡延社面光陽洞)에잇는 자긔소유의산야오십정보(五十町步)를화전민에게개방한후자긔가 평소부터 계획하엿든것을 실현코저 산림연소(山林燃燒)의허가를 신청중 지난달십팔일 인가가되야 즉시실시하기로되얏다 리씨의 계획은 동산림중에화전민 오십호위한으로 수용을한후 사업의진행여하에따라 순차 수용하야개간 하며수회시키기 까지는그식량을 일체권리리씨가 지급하기로 되얏는데 위선십호의 화전민를수용하고또 리씨는이것을 긔회로하야 이곳에다가 일대문화촌(文化村) 리상촌(理想村)을건설하야 에덴동산을 만들계획이다 씨는 이왕에도농무과에근무한경험도 잇섯는데 관직을사퇴하고 전원으로 도라와서는시를 을푸며 취미잇는세월를 보내면서 사회사업에만은 연구를거듭하다가 이번에임대 문화촌을건설한바임으로씨의 특지에감복함을 마지아니한다한다

幼稚園 保姆講習

全州에서

【전주】 전주신흥학교음악부(全州新興學校音樂部)에서는 금년부터 매년하계 강습회를 연다는데 금년은 첫시험으로 전라남북도 각유치원초등학교또는 긔독교회내 유년주일학교등의 녀교원을 위하야 어린이가 가장조화하는 동요률동(童謠律動)레유떤쓰의강습회를 열기로되엿다고한다그런데장차는 이것만에 그치지 안코호남지방에산재한사립교육긔관을 망라하야 좀더의미잇는 교육적회합을 만드리라는바금번 강습회의 규정은 별항과 갓다더라

一、定員 六十名

二、期間 七月二十五日부터 七月二十日까지(日間)

三、講師 1、音樂部 龍先生 2、律動(遊戲)部 金先東先生 3、敎育特別講話文學士朴俊泳先生

四、會員資格 1、幼稚園保姆及保育科生 2、公私立初等學校女敎員

五、會員作品發表會 會員諸氏의創作品을서로서로發表하고 鑑賞研究會도 연다고

六、其他略

警官의집에 竊盜團이侵入

삼명중일명만대포

【평양】 이십팔일 오전두시 오십분경 부내 진정방면에서 삼인조의 절도(窃盜)범인과 경찰관이일대활극을 연출하엿섯다 전긔시간에 부내동정(府內東町)삼십삼번지빈전(濱田) 순사의집에 삼인조의 절도가침입하야 실내에잇든 의류(衣類)긔타를 절취하는 제에동순사가 발견하고 즉시취압하려 하엿스나 도주함으로 동순사는 도적을따라 진정유곽입구(瞬町遊廓入口)로부터 토목출장소(土木出張所)부근까지 추격하는중 전방으로부터오든 순찰중의 소빈(小濱)순사의 응원으로 일대격투후에 결국삼명중 이명은도주하고 일명만을 취압하엿는데 동인은 부내신양리(府內新陽里)출생으로 현재주소부정한 김길덕(金吉德)(二五)이란자로 얼마전부터 평양서에서 귀금속품절도범인으로 지명수배(指名手配)의수사중이라고 목하엄중취조중 이라한다

漏川의 婦女貯蓄會

임원개선

【온정원】 황해도평산군루천(平山郡漏川)금융조합에서는 루천부녀 근검절미저축회를 조직한이래 그성적이 실로량호한바지난 륙월이십이일에 동조합회의실에서 총회를열고임원개선을 알에와 가티선정하얏다한다

▲會長元貞信女史▲監事高用泰女史▲同張蔭千女史▲書記李富順女史

城津의商業補習校 後援會組織

지난달二十五日에

【성진】 긔보!!성진사립상업보습학교는 긔간케반준비관계로지난륙월 일일이 개교예정일이엿든것을 륙월일일로연긔하고모든준비가예상대로 진섭됨에 따라목하정식인가신청까지 제출하엿다는바 지난이십오일에는 시민유지제씨가시내 곽두익씨집에 회합하야 동교설립위원장 김홍섭(金弘燮)씨의 설립경과보고가 잇슨후 만장일치로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地元) 부담금까지 결정하엿는데 임원급액은 다음과갓다

(任員) 【顧問】 夏目邑長、李根榮、康敬洛、名譽理事、金在洙、洪益、金遇淵、柳鍾夏、朴正鳳、郭斗益、金遇淵、柳鍾夏、朴正鳳、理事長、金弘燮、理事李應烈、金榮培、金鳳俊、金圭鉉、韓錫基、朴敬逑、申鉉道、許泓、呂鍾漢、金聖宇、全尹致魯、金辰淳、崔希律、相俊、崔道一、孫壽鍾、李昌根、金東元、李春吉、金錫命、許允七、金潤基、李元彬、李鳳在、金正根、許丙熙、劉贊玉、李化善、趙慶俊、金鍾壽、監事李恒鍾、李洪根、韓晋基

(金額) 金百圓也 李根榮、康敬洛、金七拾圓也 金在洙、星泉釀酒合名會社金五拾圓也 郭斗益、金遇淵、柳鍾夏、朴正鳳、金弘燮、金□□□也 韓錫基 金貳拾圓也 金聖宇、許泓、李恒鍾、金圭鉉、金相俊、崔貫玉、金十五圓也 李昌根 金拾圓也 金錫命、金貞燮、金榮培、李春吉、李洪根、金鍾壽、趙慶俊、崔道一、許丙熙、孫壽鍾、李元彬、李應烈、金東元、安貴景、李鳳在、金泰均、金潤基、成時榮、朴敬逑、韓成利、恒昌榮、金六圓也 李秉夏、金五圓也 尹致魯、金鳳俊、申鉉道、金正根、韓晉基、李化善、林俊明、同生釀、同盛泰、

以上總計金一千參拾六圓

大川에 海水浴場

今年에實施

(보령) 다년간현안이든대천(大川)군립리(軍立里)간도로는군면 지방유지의열성으로데대적수선에 노력하든바 교량까지완성이 되어이삼일간에자동차시운전을행하고 해수욕(海水浴)은금년부터 실시한다한다

薄情郎! 薄情郎!!

아이세지나은妙齡안해를 헌신짝가티버리고안보아

【목포】 지난십구일에석양이 산으로 기울어질때음 하야중년이헐신념은 녀자가 어린아희를업고 목포긔자단(木浦記者團) 사무소를 차저와서 『이리해서야 약한놈이 살수잇겟소』하고 원통한사정을하소연한 사실이잇다 그녀자는 시내창평정(市內昌平町)십오번지에사는 권귀손(全貴孫)의모 김소사(金召史)라하는 사람으로서 동에업은아희는 권남려수군청농회면작기수김성렬(全南麗水郡廳農會棉作技手金性澤)의소생인죽어년의 외손자라한다 그소위원통한 사정이란것을 들려보건데 지난 소화오년도에 이십청춘의홑노잇는 딸자식이잇서 자연어미된맘에 주야로 그딸장래가 걱정이되든바 그해십월경에 이르러

마침 시내조모(趙某)가 면화매수원(棉花買收員)으로다년려수지방에 왕래하든바 자연권귀면화기수김성렬이와 친절히알게된관계상 성렬의부탁을 바더 권귀김소사의 딸권귀손에게중매를 하는동시에 그혼수비수십원까지 조씨가 책임을지가며 온갓주선을 하엿는바 귀손의모녀는 성렬이가 사람도조코 또생활도넉넉 할뿐아니라 그외몃가지조건으로 쾌히허락을하고 결혼하게 되엿다는데 그후김성렬이는 려수읍내(麗水邑內)에 살림을차리고 오륙개월간이나 맘껏사랑의 단꿈을 싸러먹고는다시다른사랑으로 옴겨가면서 귀손에대하야는 실그머니 꽁문이를빼는 수단으로 목포창평정에잇는 친정에가서 잇스면매월상당한 생활비를 대여준다고 귀손이를 내미는고로 약한 일개녀자의 몸으로하는수업서 작년여름에 친정에도라와서 김성렬이에게 약속한생활비를 여러번청구 하엿스나 아모효과는 엇지못하고

결국 은다만무정한남자에게유린된정조의상처만 선사로 바덧슬뿐이라고한다 그러나 이긔구한인연은 복중에발서 김성렬이의씨를 바더 첨첨배가 불려가다가 금년일월경에 옥가튼아들을 분만하엿다고한다 귀손이의모녀는 슬픈중에도 즐거워호랑이도 색기잇난곳은 두남을둔다난 말로자긔자식이야불고하랴하고 김성렬이에게통지를하여도 종시 시침이를떼고 모른체하고 만다하며 삼년전 혼수비도 면화매수원 조씨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남의정조만 유린하고 또자식도 불고하난 무도한남자를그냥둘수업서 원통한 사정을법정에 호소하라해도 가난이원수라 수속비용이업스니 그리도못하고 생각다못하야 세상에바른말을 해주는 긔자단을 차저온것이라고한다

水量不足의 蘭谷水組貯水池

지주들이군수에진정

지난 이십륙일 회양군수장영한(淮陽郡守張永翰)씨가란곡수리조합(蘭谷水利組合)의회를 순시하게되엿든바 이긔회를 리용하야 지주 삼십명이 예를 지여가서진정을하엿다는데 내용을들으면 저수지의수량부족으로 이앙치 못한논이만흘뿐더러 겨우 이앙한논에도 물이부족하야 페농지경이되니 당국에서 구제치아니하야주면 삼사백의 지주와소작인들은 굶머죽을지경이라는것과 수리조합에서 하는일이 항상조치 못하니 직원전부를 혁신하여 달나는것을 진정하엿다한다。

營口의虎疫 仁川에來侵할까

仁川檢疫所와仁川署가 防疫에對하야크게努力

(인천) 상해(上海)、동지에창궐하든호렬자(虎列剌)는 중국영구(營口)에도발생하얏는데영구에는 인천서매월세번씩경긔환(京畿丸)이동래함으로 인천검역소와인천서에서는돌연긴장하야 이방면에대한 경계를엄중히하는동시에 각방면으로 상역에대하야필사의 노력을하는중이라한다

窃盜

(인천) 인천송현리(仁川松峴里)팔십오번지 곡물상김세봉(金世鳳)은 작이십팔일오후칠시반경 현금오백칠십여원과은시계한개를 죽기주머니에너흔채부내 해안정(海岸町) 자긔소유창고안에버서노코잠간다녀도라와본즉현금부와 시계가업서 도실되엿슴으로 즉시인천경찰서에계출한결과 부근에와잇든 본적 시흥군수암면성포리(始興郡秀岩面聲浦里) 주소부정한무직 라인성(羅仁成)의소위인것이 발각되어 동서에서는 범인을인치하고 여죄를취조중이라한다

平壤驛發 貨物列車가

충돌되여 손해불소

【평양】 이십륙일오후오시삼십분경진남포역구내(鎭南浦驛構內)에서화물렬차(貨物列車)가충돌되여 일시대혼잡을 정하엿섯다 동일 오후삼시이십 평양역발케六〇一호화물차가 진남포도착되여 시기관차(機關車)의입체를하는제에 인입선을진출하는기관차가입체선(入替線)의화차와충돌되여 인입측의기관차고에파손이 되엿는데 기관차에승무원이명은기적으로부상을 면하엿다는바 일시응급처치로인하야 역구내에는일대혼란을 이루엇섯다

狂人의發狂

「낫」으로雇人을傷害

피해자는생명이위독

(안성) 지난달이십칠일오후시삼십분경에 안성군안성면사곡리三八(安城郡安城面沙谷里)농업(農業)리긔호(李起鎬)씨장남경윤(康潤)은작년구월경부터 신에이상이생기여 금년봄그병증이 일층심하여지난륙원십일에 경성제대부속병원(京城帝大附屬病院)에입원하야 치료하다가 가정사정으로 집으로 도라와잇다가 그의부친과아침밥을가러먹은후 방에서나와 기둥에걸려잇는낫을가지고부엌에서 맛침부여에서 용인진위군평택면 합정리(振威郡平澤面蛤井里)에본적을 둔리복동(李福童)을 머리뒤로부터낫으로 힘것처서기리로부터폐(肺)에범하기까지 기리오산지를베혀 식혀피해자는 이산씨(崔氏)(三二)는작년 팔월부터동가에하숙하고 잇는황해도(黃海道)출생인리광선(李光先)과 자긔남편의눈을속이여밀통(密通)하는것을알게된리모는 일상주목하든바지난이십일에 현장을발견하고권고하얏는데 간부간부를상대로소송을제출(?)

不貞人妻

본부가고소

(원산) 부내북촌동(府內北村洞)십사번지하숙업(下宿業)하는리모(李某)의처최씨(崔氏)(三二)는작년팔월부터동가에하숙하고 잇는황해도(黃海道)출생인리광선(李光先)과 자긔남편의눈을속이여밀통(密通)하는것을알게된리모는 일상주목하든바 지난이십일에 현장을발견하고권고하고 간부간부를상대로 원산서에다가 고소를제출하얏다

元山의天然痘

日復日蔓延되는 죽은자가벌서네명

◇의사회에서무료종두

【원산】 원산의천연두(天然痘)는날이갈수록 만연되어이십팔일에는 부내장촌동(八場村)이백이십오번지박원랑(朴元娘)(三〇)의병세가천연두로판명되어즉시부립병원에수용하고부근일대를소독하고계속검병적호구조사를진행중인바 륙월초순이후사명의사망자를보게되엿다 원산의사회에서는래월삼사일경원산부민에게무료종두를시행하게되엿다한다

甕岩金鑛의慘變

련판이문허지기때문에 광부두명중한명은생매

【홍성】지난이십칠일밤 십시경에 충남홍성군광천면 옹암리(洪城郡廣川面甕岩里)에잇는한윤교(韓允敎)씨의경영인 옹암금광(甕岩金鑛)에서 동리편산룡(片山龍)(三三)과박학준(朴學俊)(三一)두사람이구멍으로들어가서 금을캐다가 별안간에 천판이문허저 편산룡은 현장에 생매되고박학준은 참각된채 구멍이박그로기여나와서 정신을 일코업드려잇는것을 동업이사람들이 발견하고 곳 경긔로 구하얏다고 한다。

順天郡에 戶稅滯納者五千

다연코재산을차압하겟다고

◇郡當局의方針確立

【순천】 전남순천지방(順天地方)에 금년제일긔분호세체납자가 무려오천여명에달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미군당국에서 독촉장을 발부한후 그긔한이경과되어 정당한법적수속으로는 단연재산차압을 실행할것이나 방금일반농민은 이앙에 분망중임으로 이앙이 대개끗날때까지 기다려 그후에는 단연적극적 수방침을 취하리라한다

강짜에못니겨 本妻室에放火

즉시삭주서원이체포

(신의주) 삭주군외남면청계동(朔州郡外南面淸溪洞)류진기(柳珍基)의첩 한영락(韓永洛)은 남편이지난십칠일본가에가잇든본처를데리고왓슴으로 질투의마음이업섯고 잇섯든바이십일에는사소한일로남편과 큰쟁을하자 남편은 돌연머리채를 감아쥐고때리하얏섯다한다 이를원한으로한은 익이십일일오전일시반경남편과 본처가함께잠든것을 긔회로성냥으로 집웅에불을 노핫섯는데집웅약일평을태엿슬뿐으로 즉시동민에게 발각진화되엇고한은즉시삭주서원에게 체포되어방금취조를 밧는중으로불일간송국되리라한다

七月一日낫부터 日間
朝鮮興行株式會社直營一週年紀念興行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特作無聲映畫(日本版)
내가죽인사나희 全九卷
監督 에룬스트루빗치氏
主演 라이오넬바리모어氏
◇파라마운트社特作無聲映畫(日本版)
엉터리장사 全八卷
朝鮮劇場

二十八日より大公開 特に本週も二十錢均一
新興キネマ特作時代劇好評を博した仇討河津三郎 作日本晴
雲井龍之助主演 鈴木澄子
曾我兄弟 全七卷
父の仇を討たんと辛苦艱難十八年、五郎、十郎の兄弟富士の裾野に散らずや孝の兄弟、本懐遂げて花と散る富士の曙日本晴
メトロ・ゴールドウヰンメーヤー社超特作映畫
ジョン・エス・ロバートソン氏監督 妖麗映畫界の女王
グレタ・ガルボ孃主演
船出の朝 全八卷
戀を弄ぶ美女ガルボ、そして今彼女が最後に愛兒のために如何なる苦惱の淵に沈まんとするか
自ら稱する最近の逸品、ファンと稱する諸兄姉よ!ガルボが眞價を發揮へ!久し振りの映畫界最高の女王
新興キネマ本年度大作
談俱樂部連載小說
原作佐藤紅綠 撮影三木稔 監督曾根純三 中野英治 森靜子・松本泰輔主演
鐵の花環(後篇相寄る魂)十卷
新興キネマ映畫封切場 永樂町 電本三〇一四番
中央館

六月三十日부터 太陽劇場公演第二週 連日滿員의大盛況!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南宮春編 喜劇 明나라元나라 全二幕
◇春崗作 悲劇 血肉 全一幕
◇春崗作 喜歌劇 스타가되려고 全四幕
陣容 石燕、金星、李愛利、石齊、金蓮實、金鮮英、妻貞子、崔玉姬、金英敏、李素然、趙英淑、金月愛、朴行、安仁豹、徐唯一影、沈全一、尹星敏、康石華、明華影、金石崔
演出 朴勝喜 裝置 元雨田
乞期待 近日中新舞臺夏期公演始作
高級常設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二十八日부터! 全無聲映畫大會
前例에업는大衆的謝恩興行
全京城解說者總出動!
소비에ㅡ트露西亞映畫 메지유랍폼社大作品
W平도ー후킹氏監督作品
亞細亞大動亂 全十卷(無聲版)
巨匠입텍선더윌커氏監督 獨逸우파社超特作映畫
東洋의秘密 全十卷
主演……니콜라이콜린氏
豫告……朝鮮映畫 다와사우는사람 順愛와守一
第一劇場

백일해가류행한다(一)

어머니되는이는 이러케주의하오

백

일해의 미균은지금으로부터 이십육년전에백이의(白耳共) 외볼데와장그라하는두학자가현몽서야발견한것인데백일해는틀른데린부터잇섯든 병으로조서서도괴너오는병이오 입오칠구년불란서파리서、대류행이잇섯다는사실을 자서히긔록하야둔학자도잇슴니다여하튼백일해는 미균이잇서서권염되는것은확실히 알어젓슴니다

그

러면 그미균이어써하야권염이 되느냐하면명자가기침을 하면그담중에무수한백일해의 미균이침파함에 날너서갓가이 잇는어린이의코나 입으로드려감니다、그리고인후로、긔관으로점차드러가서 번식되야긔관점막에 염증을아르키여기침을하게하는것인데 미균은여러가지의 독소를내임으로결단칩이생기기도 하고신경에접촉되야 쐬ㅣ쐬소래가나는원인이되기도하며 얼골이부어오르기도하고 출혈하게되기도하고 폐염어되기를 게하는원인도됩니다 그리그이미균은침파함에 날너명기게됩니다

골

록골록 쐬ㅣ쐬하고 기침을하게 된뒤에 야아아이것이 백일해구나하고비로소 여러분은알게됩니다이시긔를 아페도말한것과가티경련긔(痙攣期)라고하는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참으로보기에몹시피로워보혀 어떠케든지 해주어야겟다고 생각하게되는것이나 의사에게데리고 가도좀처럼낫지안이하며 백일해에조타는약은 다ㅣ구하야먹여도 조곰도낫는기색이업슴니다 그럼으로 결국백일해는 백일이지나지 안이하면낫지안는다고 하며 그렬듯이생각하게됩니다 그러나엇더한 때에는 그먹인약이효력이 잇섯든것가티병이 나어버리는 일도잇고그대로 내비려두어도낫는일도잇슴니다 (게속)

科學

「미래의대포는?」

화약을쓰게되는 총기는 최고점에까지 이르도록발달되야 이이상다른방법이 안이면도리가업슬만치 되엿슴니다 그리하야 각국은 극비밀리에이에대신할만한 새병긔의 연구가계속되는바 최근에 두철히 실제화 되여오는것은 권긔포와 겟든포인데 권긔포는 권뇌의자장(磁場)이 철을잡아쓰는것을 이용ㄴ것이요 겟트포는 탄환자체에 화약을집어느어 터저나가는 반동으로 원거리에 가게한것임니다

「철보다질긴실 인조고무출현」

△최근미국 벤실바니야의 과학연구소에서는 철보다도 질긴비단실을 화학뎍으로 맨들기에 성공하엿다 합니다

△또 동시에 제조된 화학제품의인조고무는 천연산 고무보다 훨신탄력이잇다 함니다 그리고그용의 범위가 널분만치 만일에시장에 출현되야 천연품을구축케 되여서는 큰일이라하야 일반은 매아주목하는 바이라 함니다

世界異聞

팔십육세의 로부인긔자

가ㅣ뎅돈의 명물에 한아이 팔십륙세의 부인긔자아리스이、뫈、셋클누인、삼십년래 한신문을위하야 연속적으로 집필하여잇고 긔타에도다섯가지신문에글을쓰고잇다、그 고령으로서 라듸오방송도하고각금잡지에도 글을보낸다 한다십오세로부터 신문긔자가되여가지고 팔십륙세의금일까지붓을 놋치안는다하니 아마도이방면에 다시업는긔록을가진 사람일것이라는평판이다。

사진은그한장면

映畵紹介

내가죽인사나히의梗槪

七月一日낫부터朝劇서封切

파라마운트 발성 일본판이나 불란서병사「포ㅣ룬」은전상(戰場)에서 독일의 젊문병사를 죽인것을 맛치 보듯때에 살인이나한것처럼 번민하나 싸홈이씃나자 그는자가가 죽인병사의 고향을 차저그의 묘전에 꼿을노코울엇다 그것을죽은사람의 애인이엿든 에두사는 이상하게보고잇다 죽은사나희의、모와 그마을사람들은 싸홈의적이엿든 불란서사람을 처음엔 몹시미워하엿다 그러나 포ㅣ른의순진한성격과 행동은 그들을감화하고말엇다 포ㅣ른은 그곳에 머무는동안에 어느듯에르사를 사모하게된다 드듸여포ㅣ른은 자기가죽인사나히를 대신하야 그부모와 애인을행복되게하기로결심한다

讀者文藝

「말에게졸업증서를주어」

도야지에게진주 고양이에게돈이소용잇슬것인가 그러나 말에게졸업증서를 준사실이잇스니 우스운일도잇다지만 난륙월일일 판사쓰주싸라우카운데이의 반도니아소학교졸업식당일에 이백삼십사명의졸업생도중에 실노일점홍의판시군(말일홍)이신묘하게도졸업증서를 바덧다는데 판시군은짐숫말이엿스니 이십칠세이엇섯다 당원군시험때볼유란톨크씨는 판시군은 처음부터그대로 중학교가대자이어십이년의 건물안판로니 소학교에 명기는어데이든 우위날넛다는 공적을누누히 말하고이것을 찬양하야업슬 가운데 졸업증서를 주엇다한다

散文詩 「放浪의첫길에서」

一浪

사랑하는 내벗아

나는어제 放浪의길을 떠나려한다 放浪의길!

어는 젊은이의 안타까운 心境을 시원히 맨드려주는 唯一의伴侶者임을생각하고 뉘라서憧憬아니하여보는者잇스랴마는 그러나 돈업는放浪生活처럼 쓰리고 애달픔은 쓰업스리라고 생각한다 벗아그러나 나는無錢의 漂流客이 되고저한다

×

學窓이란搖籃속에서 나는 너무나 社會를期待하엿다 社會는 외로운 어린내心情을 慰撫하여주는 慈母의손가티 따뜻하고 부드러우리라고 생각하든 때문이다 그러나社會에出脚한지 不過석달을지내지못하야 社會는 萬丈의波濤속에 航海하는그쓰라림보다도 지지안는 苦海임을 비로소 나는깨달엇다 달아서人類의幸福이란 到底히 이社會에서찻을수업스리라고밋는다 奧心에 그럿든一幅의希望도 오날에와서는 사러지고말엇다

×

結局엔 齷齪스러운이現實에서 生의線을延長식이고커하는 人生이 限업시우스웁고 가엽서보일연이다 벗아!나는몃々동무의 만류함을뿌리치고 放浪의길을 떠나려한다 그리하야 내발뿌리가 을을때외지定할업는 鋪道를것고커한다

一◇一劇 評一◇一

實驗舞臺試演 表現派劇 海戰

◇外寬大한愛人獄門◇

朱永夏

新興하는學生劇、學術的으로 演劇하는 實驗舞臺等의出現은 劇에幻滅을늣기던 우리에게 劇의「新興」을 豫感식힌다。

이제本論에들기전 間或ㄱ지나침이 잇더라도이는오로지 好意로써」라는것을 劇友들에게말하여둔다。

◇『寬大한愛人』……

成功이라고도失敗라고도할수업는 所謂「맨틀에무人窒」이엿다 그러타 우리는반갑게도이劇에서 後日을 期待할두劇友를 차젓다 이는「윌렴·케이러」로 出演한 李雄君과「채뮤엘·하인드」로 出演한 孟晩植두 사람이엿다。

「헨리」는「매기」에게애기를가 十年後에「헨나님의 義務를 履行하기爲하야 優越的態度로 求婚을請한다 十年間의 매기의 그悲慘한 生活……매기는 利己的爲緣한 信仰心에 犯憤을 抑制치못하야 모든利害關係를 無視하고 痛快하게도 그結婚을 拒絶해버린다 利害에만 살어가는 母의욕음……

◇

萬天下女性이여!이劇에서 무엇을차젓는가?「매기」가 萬若結婚을하엿더면 一生을腐爛한 觀念—信仰속에서 맛처엿겟지 至今도 그觀念이强한者들을 束縛하고 잇다는것을 痛感하엿겟지?그後의「매기」의 生活을 理智的으로 剌新할것업시 그利己的인사나히의얼굴에다 총배앗흘때「어들의 가슴에서 痛快!痛快!……를 絶叫하고 십지안턴가?

◇

衣裳·照明·은거이完全에갓가웟스나 舞臺裝置에 中央에서 너무嫌惡하여 調和를잇슨것이「흠」이라면「흠」이되지。

個評……

윌렴·케이러(牧商)…李雄君의 演技에는 참마 歎服…다 自然스러운動作。힘잇고도 沈着한語調·小毫도旣成俳優人에 比하야 遜色이업섯다。

孟晩植君…아모(그의妻) 衣裳·化粧도퍽조핫다

이劇은오로지 君과 孟萬植君으로써산 感이잇다 自重을 바란다。

제인·케이러(그의妻)……命桂媛孃은劇素에 質을라고 낫다난망을 들엇지만 이번에는失敗엿섯다。

「스시버지」압베간「새악씨」처럼너무 緊張하엿다。南立不動의 姿勢는 누구에게나 不自然스러운 印像을 주엇스니 「서리후」만은조핫다。

廉後에도 高泣한것은 興奮 興奮은 絶對禁物이다。出演者에게

매기·케이러(그의딸)…孃은素質이 잇다나 精進하기를바란다。孃은美貌와 玉聲을 가조앗스니 明日을 바라고가라。

이번에는 失敗엿섯다「作矣」……」그眞切할 우숨이「作」가되여 喜劇의序幕을 演出케엿다。

그職憤을 조곰도 表現치못햇다。

채뮤엘·하인드(雜貨商)…孟晩植衣裳·化粧·도조핫고 에찬 體驅·沈着한語調明日을 期待케한다。自重을 바란다

헨리·하인드(그의아들)中出民君의 體格과 明快한音聲은조핫다 그러나君은 조금도 感情이업는 죽은「서리후」를 朗讀하엿다。

『獄門』

失敗는업섯다。村民暴動에 參加한善良한 靑年은 死刑當한다 죽엇다는 片紙를못보는 文官인어머니와안해는벗 百果집을 걸어와서 悲慘한消息을듯는다 어리하야 두女人은絶叫한다。

◇

우리는 이劇에서 人民의生命財産을 保護한다는 官吏가 賂物을 密收하고 歷々한罪人을 放免한것을 記憶하여야한다。

裝置·照明에는 驚異의눈을 뜨게하엿다。그러나「老婆」와「며누리」의 衣裳이너무藻麗하여 哀憐의感을 이르키지못햇다。

演技는 評할것이 못되엇다

「海戰」

이는「괴ㅣ링」의 一九一七年——極度로 戰爭을 呪咀한 時代에 發表한作品으로 相當한反響을 일으킨作品이다。어느批評家가「觀念이陶醉속에잠기는 故로이作品은 眞正한意味에 잇서서는 戲曲이아니다」라고 斷定한만치 金幅이 集團的迫力·興奮·騷擾에 찻다。

이劇은 表現派劇인것만큼 相當한 理解를가저도 眞髓를 삽기에는 困難하다니 普通觀衆에게는 衆求할하는 盲人여기서 좀考慮이 必要하다이格」이 되엿스리라。無臺裝置도「築地小劇場」의것을 模倣하엿다고본다 照明은 絶對의 効果를 가젓스나 衣裳의 不調和와효樂의 低音이 半이나 劇을죽이엿고前半의對話가 三四十分이 나걸리엇슴이 劇을죽이엿다 그러나 一般「팬」에게 厭病을 준것도 無理는안이겟지。

……七月二十九日……

少年詩

네!어머니!

李月岩

(藥山下의橫友에게)

어머니!
왜 한숨 쉬십니가
왜 신세타령、하십니가
왜 그리고 우십니가

네?어머니!
눈물을 씻고 우서주세요
이자식의 팔과 다리에
한가락 두가락 힘돗는것을
보고
안심하고 우서이자식을 마
지해주세요
네?어머니!
(끗)

「벗생각」

一浪

오날도나는
北漢山에올나가
北國하날을 멀리바라보며
구슬푸게思友歌를
불넛슴니다

×

되지못한사나희들이
나의 노래를듯고
비웃고 지나가지만은
나는여러번이소리盡하
네노래를 쓴칠줄몰낫슴니다

×

노래하고 노래하나
듯지못할줄은 뻔히알면서도
그래도행여나 하는마음으로
채가지도록
처량히처량히思友歌를불렷슴니가

님

極光

×

생념따는 아가씨가 織女인듯 귀옵시고
길가에 牧童아해 牽牛인듯 뵈는구나

×

구름찬 東臺우에 妓女하나 춤을추니
나붓기는 옷자락이 仙女인듯 하여라
南山허리 淸凉水를 듬섹떠서 마섯스면
炎天아래 씻는몸도 씨슨듯 니즈렷만

귀닉은 소리기에 방문열고 내다보니
강남간 어린제비 넷집을 차젓것만 엇지다
우리님만은 돌아올줄 몰으는고。

×

고개길 바라보고 문터에 걸안즈니
눈뜨나 눈감으나 님생각 뿐이로다
버넉시 애타고잇슴 님이시면 아오리。

×

뫼넘고 강을건너 님게신데 어데렌고
륙로로 이천리오 수로로 천리라네
두어라 내생각만은 님의겨테 잇노라。

故鄕

광현

天勝亭 연못가에 물잔자리 나려들고
石峯亭 적은亭子에 將棋소리가 낫닉어라

×

天頭寺의 鍾소래에 정상과누 눈물짓고
衒雲山 뻑국소리에 잠못일우는 젊은學徒

小品

街頭音樂家

薛道植

여름도 그럭저럭 지터저가고잇다。「아와시가」의 검푸른넘히 쐬는듯한 七月의햇볏에 무르녹는 무더운엇던날— P公園뒤 으슥한 담못둥이에는 오날도또한 簡易바이오링 獨奏會가 開幕되고잇다。

그래도공 人자 求景이라고 입을벌이고달녀든數만흔「팬」들이 제택히 둘너쌋흔 그속에서는 主人公될사람의 靑山流水가튼 常習的開會詞가 흘너나온다。

뜨거운 햇발알에 모힌사람들의 모지루칭이 억골에는땀마저 흘너내려 갑아반작어리는것이 얼는始作하라는듯이 단듯이되러 다보고는주엄거린다。

어느듯 無意識에 나도팬의 한사람이 되고말엇다。

演奏는始作된다。

—陽山道— 朝鮮名曲이란다。線을서리는 다섯손가락이 自由自在하게 움식이니 이에 歲月일흔 梁山道의 그윽한「메로듸ㅣ」가 헐어빠진 바이오링통을通하여 聽衆의 고막에 가벼웁게울닌다。

聽衆은 完全히 도취되엇다。

「크라이막스다」—

눈을감고 막한다。원처 常習이니 안그러코야—

×

못이낫다 속넘들!

엇덧슴니까 취하 잘하지요

거절하는데 모ㅣ든사람은 이다음에는……

그케야 제精神에 들어간모양이다。

事實흥금하엿다。오히려큼직한 音樂會가튼데가서 말아듯지도 못하는것을 바른아느체하고 버틔고 안젓느니보다는 이런데서듯는것이 어도(素人)들에게限하여서는한결돗기가낫다。

한번 더하시요이번에는 아주술술녹게……칭찬하는바람에 當者의 억골에는 무엇인가 깁브다는 暗示가表現된다 이번에는……아리랑 興打令……

×

演奏는 연속적으로 계속된다。

聽衆은 또한 熱狂될나한다 그리다가 그는 별안간 손을 닷치다는징게로 슬적「바이오링」을「삭구」속에 집어넛코는 엉뚱한 소리만한다……

大勢는점점脫線되어간다……

그저그럭군 이거야 청중(聽衆)은 주저거린다 딱하지 안허도 밥서廣告이다。

그는 별안간 語擧을돕폐!

『여러분……』

내가 웨이러케 질거리든질거리로 큰편生活을 거듭하며 여러분압헤 賤하다는말조차 들어가며 이지랄을하는지아십니까? 露骨的으로 말하면 다만팡 問題解決 때문입니다 人生은 오로지 먹음에서 生을숨기는 動物입니다。먹음을 어든다음에 그外모ㅣ든學問이며 娛樂이잇슬것입니다。』

『잘은수서들엇다。횡ㅎ게의이는구나!』 지나가는 學生들의 말소리다。

『여러분이可憐한者를 도아주십시오 다름아니라 오날도 世界에서 有名한 米國化學者 ○○○○博士가 九年이란 긴동안을 全혀 研究에 硏究를 거듭한結果 今般새로히 發明한 無骨虫退治하는 名藥을하나 소개하랴함니다。』…

이말이씃나자 그는 멀니바라보고잇다가 별안간 모자를버서들고 누구에겐지 人事를뎁버한다—

『나리이번만 容恕하여주십시요』

『난다고라시요가나이나 고쓰와……』

기샤이노마!』

합업시그는 헐어빠진 바이오링통을 집어들고 어슬녕어슬녕그의뒤를쏘차간다。

그건멀 또 삼어간담가엽서 또힐썻두들겨맛겟지……어느노파의 고마운말소리다。

聽衆은 슬며시 흐터커간다 고만이다

×

이것이 簡易音樂會의 終局이다 公會堂서열니는 音樂會보다는 너무나보람업는 悲慘한終局이다。

이것이果然 누구의 罪이랴 機械的이나마 아와 그의떠들던말팡 을어드려……

그러타 이것또한 ××만흔 現實의 副産物이다 오호 가엽슨 街頭音樂家여! 警察署가서도 앗가가튼 不穩文句는 쓰지말기를……

×

뜨거운햇발은 겨우 西山에 기울어저잇다 나는 또한갈길을 터벅터벅거린다。

—(끗)—

讀者文藝作品募集

讀者여러분의 文藝作品을 募集합니다。여러분과本社와는 늘이러한交涉으로 가티 울고 우스며 自己의生活을 開拓하야 新文化건설에 努力할 貢獻이 잇는것입니다。綠陰은 바야흐로 무르녹아갑니다。우리는 自然의속삭임에 귀를기우리는 機會를만듭시다。그리고 늘 思索하는習慣을 길러야합니다 그리하야 여러분의 情緖의움직임과 思索의가르침을 그대로 적어보내십시요。우리는 가튼人間 더구나 가튼處地에잇는사람으로서 반드시 서로 共鳴하게될 무엇을 發見하게되리라고 밋는바입니다。

應募規程

一、短篇小說 一行十四字十行原稿紙八十枚以內
一、戲曲(一幕) 右同
一、隨筆 一行十四字十行原稿紙三十枚以內
一、新詩及童謠 長短隨意

◇優秀한作品엔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라디오

七月一日 金曜日

午前一〇時〇分 氣象狀況 各地天氣實況 同一〇時四五分 料理獻立用品値段鮮魚卸賣相場 同一一時五九分正午의時報 뉴ㅣ스 午後〇時三〇分二曲 菊口光子 佐藤敏子 同一時一〇分 家庭講座 夏季의毛織物의保存에對하야 宋今璇 同二時一五分家庭講座 消毒上의注意 宮本吉次 同四時〇分 뉴ㅣ스 公示事項 同五時四五分라듸오體操 職業紹介事項 同六時〇分童謠「獨唱과齊唱」京城保育學校生徒 指揮鄭淳哲 同時三〇分英語講座(A)初等科(三十四) 同七時〇分뉴ㅣ스 公示事項 翌日의프로그람發表 同七時三〇分講演(A)敎育과映畵 文學博士 山岸光宣 同八時〇分淸元(A) 同八時四五分獨唱과管絃樂(A)(新交響樂練習所에서中繼)一、獨唱 管絃樂伴奏)獨唱藤原義江 伴奏 日本放送交響樂團 ピアノ伴奏近藤柏次郞 同九時三〇分時報 A)氣象狀況各地天氣實況계속하야 浪頭口演(三) 春香傳中御使出道의場 手 丁正烈 鼓手韓成俊

水浴客汽車賃割引

여름을맞는 각지 해수욕장은임이열비가 정돈되여 승객의래방을 기다리고잇다 철도국에서는 승객의 편의를도모하야 다음과가티 기차임금을 할인키로 되엿다한다

▲釜山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大邱 慶山、淸道、密陽、三浪津 院洞、勿禁各驛에서二、三等二割引

▲馬山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卅一日까지大邱、密陽、洛東江、楡林亭、進永、德山昌原에서二、三等二割引

▲鎭海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大邱 密陽、三浪津、進永、昌原上南에서二、三等二割引

▲浦項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大邱 乾川、慶州、金丈、土方、安康佛國寺、蔚山에서二、三等 割引

▲木浦行 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全南 光州三鄕間各驛에서二三等二割引

▲仁川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京城 龍山에서二等往復一圓八十錢(小兒半額)三等往復一圓에割引

▲元山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京城 龍山、淸凉里에서二、三等三割引

▲西湖津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咸興에서 三等往復 四十五錢(小兒半額)割引

▲夢金浦行海水浴客‖七月十日부터八月三十一日까지局線內京城、龍山、開城、平壤、鎭南浦

社告

任木浦支局長 裵致文

右와如히木浦支局을設置함

昭和七年六月二十五日

朝鮮日報社

謹告

任記者兼會計 金順泰
任記者 千世英

朝鮮日報木浦支局

任榮山浦支局長 洪紀植

右와如히榮山浦支局을設置함

昭和七年六月二十日

朝鮮日報社

任總務兼記者 吳錫漢
任記者 朴亮洵
任集金員 洪勉植
任顧問 李相繪

昭和七年六月二十日

朝鮮日報榮山浦支局

朝鮮女男轉自車競技大會

時日 七月九、十日(土曜日兩日間)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入場料十錢均一)

主催 金仁自轉車商會 金元白自轉車商會 江崎鐵工所平壤分工場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大會事務所朝鮮日報社平壤支局上層)

小說 暴風雨 (八)

咸英一作

『참그런데 그새용선이일작 올낫다。햇서?오날은어데보냇노?』

『논에보냇서요?』

『수!거잘햇군!』

멀리서산머리에 해저무려가는황혼이되여 오는이때다 윈종일논김매느라고 섬홀리든용선이는 집으로돌아오든길에 강건너편에서지게를 버서노코 수평선(水平線)우에고히흐르는락조(落照)를바라보며 왼몸에뭇은진흙과땀을씻느라고목욕 (沐浴)을하다바루과수원기슭기에서 빨내하는 자기안해숙히를바라보앗다

숙히가문득눈에 씌때그는 퍽반가웟다 그러나자기가그곳에서 목욕하는 줄도모르는고열심이빨내방맹이만올 자조놀리는그의모양을 멀리석은눈속으로 바라볼때 일편(一便) 처량하고 가이업슨 생각이 문득그의가슴에떠……

세상의사람은 다갓것만아리는왜남의 로례가되여지내야할까왜이런고초를 겪지아니면먹고 살수가업슬까 생각하면 생각할사록그의 심청(心情)은괴로워지는것이엿다 자기의신세보다사랑하는숙히의어린몸이 더욱가이업시생각되엿다。

『이거반낫 새벽부터밤들도록피염흘리여일해주고 겨우 엇는이입이나 어더먹으니이게 사람인가 무어람!사람인가 명색이 내려인가!에——삼눔의세상 이로군!후—』길게한숨을 쉬엿다。

그는피곤한다리를 쉬고나서 강을건너숙히가잇는곳까지왓다。

『아이고 벌서오서요——』

『시장하시지요—』 숙히는방긋웃으며반가이마저주엇다

『벌서라니!해가 다젓는데』

『커-영감오셧다오 아직더들지안엇는데 일숙 들어왓다고그러면어덕해요!』

『머영감와서!난쇠안은 좀알엇지!』 용선이는좀려정스러웟다。

『이거봐요 종일 빨내를햇드니 손이 부 러요』

숙히는새빨가케 부루튼손바닥을용선에게 보이며힘업시우섯다。

『원커런—빨내가 웬거이그리만어?』

『큰집에서내왓서요 나다려빨나고。거반빠랏서요!』

『손님호면 고만들어가지』

『이거조곰남은것 마자빼러가지고들어갈게 어서들어가서요먼저』

『그럼어서 빼라가지고들어와』

용선이는먼저들어왓다

『영감!안령히 단녀와게십시요!』

『아이 논에갓드랫나!』

『네!』

『그런데벌서왓서 오날얼마나맷나?』

『네!옷논는다맷슴니다』

『그럼아켓논을좀더매고들어오겟지아직어둘때가멀엇는데벌서들어온담!그래쓰나남의집사는사람이 부즈런해야지』

용선은 아무말업시고개숙이고서잇섯다。

『그리고 사과밧은다손질햇나?별레도다잡어주고풀도다쓰덧서?』

『네!다해노앗습니다』

『어데내래일검사 (檢査)해노아야지그럼어서마당이나쓸고 저녁먹게 그리고좀더부즈런이일해용!게을리굴면 자미업스니까』

남수의팽팽한말재와 날카로운눈초리는 용선에게적지안은공포심을 더커주엇다

그날밤이다 용선은방에드러누엇스나 좀처럼잠이오지안엇다

어둠속에서 곤한몸그대로 사리에눕기가 무섭게식식세상모르고 자는자기의안해의 숨소래만이 방안의적막을온늘때 그의마음은더한층쓸쓸하엿다。

내나히지금서른살태산(泰山)이라도 허리 바릴만한힘은사나희몸으로써 무엇을못해서남의종노릇을하며 이업슴을밧는답 피염을흘리여일해주고도 똥갑한돈못밧고겨우밥이나어더먹으니 어게대체사내는의할짓이랍